

교보생명환경문화상

08-3-00
8/24

수상 소감문

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

교보생명환경문화상 시상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교보생명문화재단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 최고의 종합환경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세계지구의 날에 우리나라의 환경교육, 환경운동, 환경언론 그리고 환경예술 등 4개 부문에서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사회실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는 것은 교보생명의 특별한 환경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높이 평가합니다.

이 상의 제정 초기부터 수상자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 관여하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행운이었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끈질긴 활동을 해내고 있는 환경지킴이들에게 이 상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상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깨닫기도 하였습니다.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더 많은 유공자들에게 이 상이 주어지기를 늘 바래왔습니다.

그런데 금번 10주년을 기해 시상되는 특별상을 별로 한 것도 없는 제게 주신다고 하니 송구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. 다만 분명한 것은 훌륭한 선배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한다는 점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이 영예는 여성환경인들의 모임인 여성환경연대에 돌리겠습니다.

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것은 남은 생 동안 지금까지 부족했던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보다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.

매서운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.